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張玉煥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団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 장마철 약초관리 4면
- ◎ 산지동향 5면
- ◎ 알아두면 좋은
우리약재 효능 6면
- ◎ 여름철 보약 복용법 8면

“규격화문제 있다”

관련업계, 모순점 지적하고 나서



◇지난달 13일 지방중상들이 규격화 반대를 주장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

시행초부터 우왕좌왕, 제도보완 시급 농민 허용 조항 사문화 가능성도

1일 한약재 규격품 예가간을 거쳐 본격 시행이 6개월 간의 유행에 들어갔으나 시행초

기부터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에다 여러가지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한약재 규격화는 규정상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을뿐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는 물론 관련업계에서조차 시행 세부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96 하계수련대회

이른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양일간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기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양일간

농민청 특용작물과 한 관계자는 “수급조절특별 중치자를 제외한 29개 전분품에 대해 국제경제 협력제고를 위한 우량품종 육성과 생산기술개발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장경쟁력을 이유로 수급이 확대되고 생산품종의 재배기반이 붕괴된다면 머지않아 수

심여종의 재배된 작물도 흔적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현실적인 분석이다.

상승만을 추매,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또 관리규정이 농민이 생산한 것도 표준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매업소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고는 되었으나, 제조업소를 통해 나온 규격품과는 달리 그 품질에 대한 책임을 도매업소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규격화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

“96 하계수련대회 및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일 시 : 1996년 7월31일(수) ~ 8월 1일(목)
장 소 : 한알 단양 유스호스텔
참가대상 : 생산자회원 및 소비자회원

- 주요행사 내용
- 특강(목포대 임경택 교수, 경희대 안덕균교수)
 -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 생약인의 한마당, 환경보호캠페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 967-8133으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29개 수급조절 품목 개방논의 재개

농림수산부, 생산자단체 반발

지난달 5일 열린 제 16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련의 이어진 것으로 알았던 수급조절 품목 개방논의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자 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일부 수급자단체는 의약품원료의 저렴한 구입을 이유로 수급조절 품목의 전면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생약업계의 기반이 아직 미약한

현실속에서 더구나 29종에 불과한 수급조절 품목을 완전개방 하겠다는 것이 생약재 농가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 지적된다. 수급조절 품목이란 구

기자 등 총합기 시호 작약 등 29종이며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부출분에 한해서는 필요한 만큼 들여올 수 있도록 탄력 운영되고 있다.